

# 4+1, 선거법 내일 표결... '비례한국당' 공식화

### 패트법 처리절차 진행 필리버스터 오늘밤까지 계속 공수처법 상정 대치 이어질 듯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선거법 표결을 앞두고 여야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극한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처리에 대응해 이른바 '비례한국당' 창당을 공식화하고 나서면서 정국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24일 선거법 상정을 시작으로 이른바 개혁 입법 절차를 완수하는 데 당력을 모았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저지에 나선 상황에서 선거법 이후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이 줄줄이 예정돼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이를 완수하겠다는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이해를 구하면서 정치개혁을 시작으로 검찰개혁, 유치원 개혁, 민생개혁 법안 처리까지 거침없이 달려가겠다"면서 "조금 더디고 번거롭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국회법에 따라 개혁 완수까지 뚜벅뚜벅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한국당의 '비례한국당 카드'를 강하게 비판했다. 법적 허점을 노려서 비례대표 배출만을 위한 별도의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생각 자체가 '국민 무시'라는 것이다.

파급력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일각에서는 '비례민주당' 필요성도 거론되지만, 4+1 공조 체제를 깰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 지지하게 검토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한국당은 이날 회의 진행의 불법성과 선거법 개정안의 위법성에 초점을 맞추고 여



“휴식이 필요해” 연동형비례대표제 등을 내용으로 한 선거법개정안에 대해 여야 의원 간의 무제한 찬반 토론이 계속된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여당 의원이 피곤한 듯 자리에 엎드려 있다. /연합뉴스

론전을 통한 막판 저지를 시도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 로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 선거법 개정안을 '위한'으로 규정된 뒤 "지역구 투표와 비례투표를 연동, 연결시키기 때문에 직접선거라는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이념이고 원칙이고 다 버리고 오직 밥그릇에만 매달리는 추태"라고 비난했다.

한국당은 28일 광화문에서 장외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당은 '비례한국당' 카드를 공식화했다. 필리버스터로 표결 시간을 늦출 수는 있지만 선거법 저지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보고 선거법 통과 이후에 대한 대비에 나선 것이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반(反)헌법적 비례대표제(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면 곧바로 저지는 비례대표정당을 결성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불출마 의원들을 '비례한국당'으로 보내는 구체적 방안도 나왔다.

비례한국당이 만들어지면 한국당은 지역구 후보만 내고 비례한국당은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것으로 비례한국당은 지역구 당선자가 없기 때문에 득표율만큼 연동형 비례대표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다.

여야의 필리버스터 극한 대치는 이번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25일 밤 12시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6일 오후 2시 새 임시국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한 상태로 선거법은 이날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4+1 협의체가 이미 의결 정족수를 확보한 만큼 4+1 협의체가 마련한 수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어 패스트트랙 법안인 공수처법을 상정하고 또다시 필리버스터 대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한국당, 선거법 상정 문 의장 성토

### 국회서 필리버스터...원외선 선거법 반대 여론전

자유한국당은 24일 자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전날 본회의에 상정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비난을 퍼부었다.

선거법 상정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한 한국당은 이날 필리버스터와 더불어 본회의장 밖에서 기자회견을 연달아 열고 선거법 반대 여론전을 병행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 로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의장은 의장으로서의 권위와 위신을 땅개치고 좌파의 충견 노릇을 충실하게 했다"며 "그는 파렴치한 의사 진행으로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문 의장이 전날 '임시국회 회기 결정'에 대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기각하고, 예고된 의사 진행 순서를 바꿔 선거법을 우선 상정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던 주호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문 의장은 민주주의를 망친 최악의 국회의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신의 뒤로 더 붙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데 대해 "어떻게 찬성 의원에겐 무제한 토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느냐"고 했다.

한국당은 문 의장의 '아들 지역구 세습' 논란에 대한 공격도 이어갔다.

심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왜 권력의 시너로 전락했는지 국민은 안다. 아들에게 지역구를 물려주는 '아빠찬스', '의원 찬스'인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언급했다.

한국당은 문 의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사퇴촉구 결의안 제출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을 하는 등 최대수위의 압박을 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총선 라운지

### 이정희 “검찰 개혁법 반드시 통과 시켜야”

#### 광주 동남갑 예비후보

이정희 더불어민주당 동남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4일 성명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 개혁법안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좌우할 핵심 개혁법안으로서, 국회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이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협의체가 그동안 선거제 개정안을 둘러싼 진통 끝에 연동형비례제 도입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상호 양



보하면서 최종합의했다"면서 "여러 가지 아쉬움이 남아있지만 상호 협상을 통해 최종합의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다"고 평가했다.

또 "필리버스터가 근본적으로 정치적 힘이 약한 정치적 약자와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한 약자보호 제도이다"면서 "과연 자유한국당이 정치적 약자인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 전·현직 광주시의원 32명 조오섭 지지 선언

#### 광주 북구 갑 예비후보

전·현직 광주시의회 의원 32명이 제 21대 총선 광주 북구갑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전·현직 시의원들은 24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 예비후보는 광주의 힘이 되어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지역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고 밝혔다.

또 이들 시의원들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의 개혁을 막아서는 세력에 대한 심판의 장



이 돼야 한다"며 "광주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던 전·현직 광주시의원들은 조 예비후보가 올곧게 평가받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시의원들은 "조 예비후보는 6·7대 광주시의원들과 함께 지방자치, 지방분권 시대의 새 지평을 열었고 광주시의회를 전국적인 모범으로 만들었다"며 "문재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국가균형발전 전문가로 성장한 광주의 인재다"고 평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민주 “개혁열차 출발 ... 역사에 남을 결단”

### 패트법 상정 자평...“한국당 의사 진행 방해시 사법처리 요청”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합의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들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것을 두고 '역사에 남을 결단'이라고 자평했다.

아울러 표결 저지를 위한 한국당의 항의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대해서 '이성을 상실한 게 아니냐'며 거세게 비난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4+1 지도자들의 한 걸음 물러선 결단은 정치사에서 보기 힘든

장면이었다"며 "국민의 뜨거운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 열차가 플랫폼을 출발했다"며 "거대한 개혁이 시작된다. 조금 더디고 번거롭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국회법에 따라 개혁 완수까지 뚜벅뚜벅 전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이 전날 본회의에서 법안 상정에 거세게 반발한 데 대해서 "한국당의 태도는 명백한 반칙이다. 사과와 재발 방지를 한국당에 강력히 요청한다"며 "한 번 더 의사진행 방해가 재발한다면, 필요하다면 사법처리 요청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성식 정책위의장은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 열차가 플랫폼을 국민의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당리당락을 떠나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의 길에 매진했고, 야 4당도 이런 노력을 함께하고 동참한 끝에 타협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한국당을 향해서는 "어제(본회의에서) 보인 행태는 이성을 상실한 집단의 난동과 같았다"며 "신성한 본회의장을 추악한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켰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

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 중이지만 한국당이 결심하면 얼마든지 국회를 정상화할 수 있다"며 "한국당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의원은 대체 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안들이 올해 안에 통과되지 않으면 병무상 심각한 법적 공백이 초래된다고 언급한 뒤 "(한국당은) 국회 마비 행위를 멈추고 국가의 근간을 지키는데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김영호 의원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된 '공명지조(共命之鳥-머리가 두 개인 상상 속의 새 공명조의 한쪽 머리가 죽으면 다른 머리로 죽을 수밖에 없다)를 언급한 뒤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의 파괴적 행보에 공명조의 머리색이 그대로 투사된다"고 지적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정시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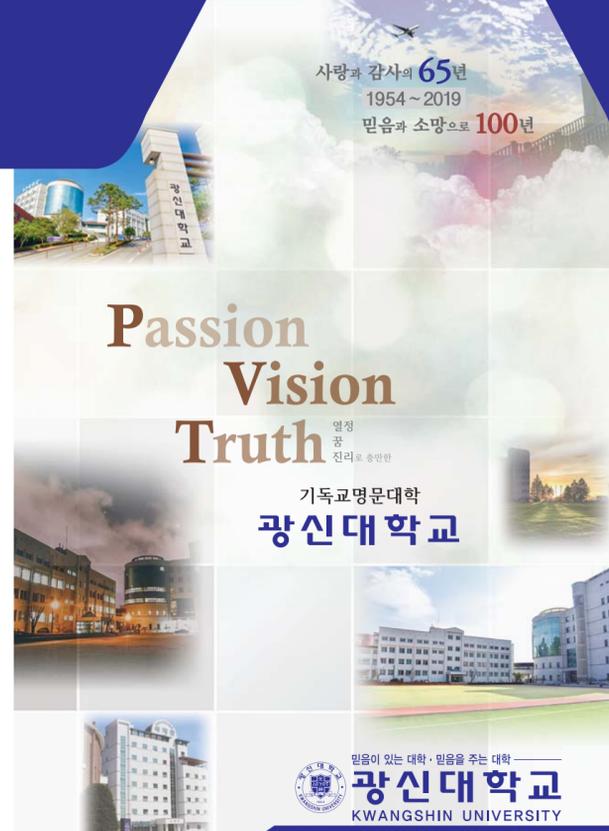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학과	15
	한국어교육학과	2
사범	유아교육과	3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정신교육상담학 전공)	3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5
<b>총 계</b>		<b>28</b>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19. 12. 26(목) ~ 31(화)  
전형일: 2020. 1. 7(화)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대학원 0621 605-1115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

##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0	
		신학과(Ph.D.)	7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8	
		상담심리치료학과(D.C.S.)	8	
		코칭심리학과(D.Psy.)	8	
		통합예술통계학과(D.C.S.)	5	
		석박사통합	통합예술통계학과(D.C.S.)	10
				신학과(Th.M.)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심리치료학과(M.A.)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코칭심리학과(M.Psy.)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20	
		음악학과(M.A.)	6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6	

**전형일정** · 원서접수 [특별전형] 신학대학원 2019. 11. 19(화) ~ 11.27(수)  
[일반전형]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2019. 12. 2(월) ~ 12. 11(수)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